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

광주자생한방병원 임진강 원장

# 사고 경중 떠나 48시간 이내 진단 받아야

#.울 초 김은정(28·회사원)씨는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던 중, 뒤 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회사에 출근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가벼운 접촉 사고로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생활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김씨는 하루 종일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껴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후야 병원을 찾았다. 제때 치료를 하지 않은 김씨는 결국 현재까지도 만성적인 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통증이 팔까지 퍼져 많은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진료 늦은 환자 통증지수 2배  
미세 손상 인지 못할 수 있어  
일주일 뒤 통증 나타나기도

◇교통사고 후 통증 없어도 진료받는 것이 원칙=교통사고 부상은 사고의 경중을 떠나 사고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클리닉'을 내원한 환자 859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내원한 환자와 이후에 내원한 환자의 통증지수를 확인한 결과,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은 환자의 통증지수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2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지수의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통증 없음'을 0으로 '극심한 통증'을 10으로 삼는 10점 척도를 활용해 치료전과 후의 통증 정도를 기록했다. 그 결과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은 환자의 통증은 치료 전 6.75점에서 치료 후 3.05점으로 3.7점이 감소했다. 반면, 48시간 이후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9점에서 4.98점으로 약 1.91



광주자생한방병원 임진강 병원장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약침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제공>

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치료를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통증지수는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임진강 병원장은 "의사들 사이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빠르면 빠른수록 치료도 쉽고 효과도

좋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이런 조사결과에서 교통사고가 난 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효과가 좋다는 객관적 결론이 나온 만큼, 교통사고 부상을 방지하지 말고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뒤늦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후유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다"고 말했다.

◇후유증 사고 이후 수술 일 지나 나타나기도=많은 이들은 교통사고 후 큰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업에 종사하거나 바쁘기도 하고, 살짝 흔들린 것 뿐인데 별 문제가 있겠나 싶은 생각에 병원 방문하는 것을 미루곤 한다.

실제로 조사에서 48시간 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262명 중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은 사람이 106명이나 됐다. 또 49명은 '외상과 통증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늦게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틴다'는 항목에는 64명이나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단순 접촉사고라도 짚게는 수일, 길게는 수십 일이 지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단순 교통사고 직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고 당시 격한 흥분상태에 있어 통증에 대해 둔감해 있거나 신체 전반에 통증억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 통증억제 작용은 시간이 지나 점차 사라지면서 사고발생 2~3일 이후, 혹은 1주일 후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비록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척추와 여러 관절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한다. 당장 아프지 않다고 치료 미루면 X-RAY나 MRI와 같은 진단검사 장비로도 손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받아 만성 후유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2월25일에서 3월9일까지 전국의 자생한방병원을 찾은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의료칼럼

## 명의(命醫)로서 척추 의사의 고뇌



김중선  
천우리병원 원장

두 분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신다. 척추 수술을 하면 허리 못쓰게 된다고 들었다. 척추 의사를 힘 빼지게 하는 소리다. 수술도 적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회복이 안 될 수가 있다. 적기를 놓치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는 80% 이상의 치료 확률이 없는 수술을 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척추 수술은 논문으로 치료 결과가 나와 있다. 척추 외과 의사의 말을 믿어주길 바람이다.

3대째 의사를 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환자를 보는 거 외에는 사실 재주가 별로 없다. 나이가 들면서 조그만 방 안에서 반복적으로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동료 의사들도 보게 되지만, 이 조그만 공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쏟아 부으며 환자를 보다 보면, 집에 갈 때는 쓰러질 지경이 된다. 종종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할 때도 있지만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좋아하는 환자, 나를 기다려 주는 환자를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

필자는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한 두 건의 수술을 진행한다. 외래 환자 50명 중에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보통 3~4명이고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수술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90%이상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한다.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수술이 위험해서 수술을 안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수술이 그 분에게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면,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술을 권유하는 분들 중에 한

사실 일반 환자들은 모르는 척추 의사의 고뇌가 하나 더 있다. 척추 수술도 잘 끝나고, 환자가 치료가 잘 끝났는데 수술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황당한 소리 같지만 우리나라는 척추 수술이 후불제이다. 일단 내 돈으로 수술 준비도 하고 약도 쓰고 치료를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환자와 나라에서 돈을 줄지 말지를 정한다. 환자 분들은 모두 돈을 내고 퇴자, 나를 기다려 주는 환자를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

필자는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한 두 건의 수술을 진행한다. 외래 환자 50명 중에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보통 3~4명이고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수술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행히 고마워하는 분이 많아서 보람을 느끼며, 나의 운명을 사랑하고 있다. (Amor Fati).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고뇌하며 진료하고 있다.

## “스마트 수업 열심히 듣고 건강해질게요”

### 화순전남대병원 어린이 교실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내 여미사랑병원학교의 '스마트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형 전자칠판과 태블릿PC, VR(가상현실)기기 등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치료중인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미사랑병원학교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인 '스마트 스쿨' 공모사업에 응모, 지원대 상학교로 선정됐다. 삼성으로부터 3800만원을 지원받아, 작년 말 내부공사를 거쳐 지난달 6일 개소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태블릿PC와 앱을 활용,

도형이나 동식물에 관해 입체적으로 배우고 있다. 직접 관화를 그리거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심장 등 몸속의 장기들이 하는 역할을 생생히 알게 됐다. 화상수업을 통해 도래친구들과 소통하고, VR기기와 360도 카메라로는 신비로운 우주와 세계문화유산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백혈병을 치료받고 있는 김모(화순 오성초 4)군은 "VR기기로 독도를 가상체험해 볼 수 있어서 아주 신났다. 얼른 완쾌해 선생님 손을 잡고 함께 가보고 싶다"며 반짝 웃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쉽게 풀어쓴 '고주파 통증시술 지침서'

### 김수한 새우리병원장 등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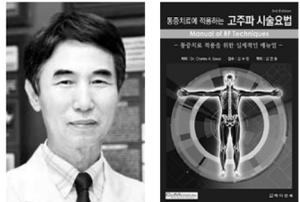
새우리 병원 김수한 교수(사진)가 원광대 김연동 교수와 공저로 고주파시술에 관한 전문서적을 출간했다.

척추 비수술 치료 중 하나인 고주파 시술에 필요한 원리와 해부학, 실제 임상 적용 방법을 부위별로 쉽게 설명한 '통증치료에 적용하는 고주파시술요법'은 의료현

장에서 실질적으로 항상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통증시술 전문서적이다.

임상에서 고주파시술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게 각 장마다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적절한 참고문헌과 참고서적을 인용해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삽화와 사진이 눈길을 끈다.



저자인 김수한 원장은 "모든 통증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안전이다. 통증 시술에 대한 올바른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는 인식하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 많은 통증치료의사들에게 유용하고 사랑받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33년간 전남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와 대한신경외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에는 세계 신경외과학회 한국 유치단 심의위원장으로 최초로 세계 신경외과 학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상무지구 상가 매매

□ 10층 중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상무지구 중심상업내

□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전대 정문 2분.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 내부갈끔 )

▶ 매가 2억4천만 (용 1억6,500만)

###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정가 6천 → 최저가 2천7백
- 상무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정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

**① 경매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② 경매 실전 전문반**

실전 교육등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